

2021년 3월 7일 속회 나눔지

환영	서로 인사를 나눠주세요.	5분
찬양	<p>♫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</p>	5분
합심기도	성령의 임재 안에 모임이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한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.	2분
말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 쇠하는 자의 기쁨 ” [요한복음 3:30] 30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</p> <p>예수님께서서는 ‘살렘’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고, 요한은 살렘과 아주 가까운 ‘에논’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분하고, 화가 났습니다. 세례 하면 우리 선생인 요한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섭섭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무슨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그런데 분한 마음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. :27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요한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, 지금 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. :29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, 세례요한은 왜 기뻐했을까요? 세례요한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. 반면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.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까? 제자와 같습니까?</p> <p>세례요한은 분노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. :30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더 이상 ‘나’는 없어요.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. 더 이상 내가 높아지고, 유명해 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.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무관심한 대우를 받아도, 쇠하여져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.</p> <p>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어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.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. <u>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쇠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복음을 알면 알수록 쇠하여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‘나’는 없는 겁니다.</u></p> <p>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‘나’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더 이상 ‘나, 나, 나’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.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.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선포하고, 쇠하여지고, 작아지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쇠하는 자의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</p>	10분
질문 & 나눔	1. 나는 세례요한과 같습니까? 제자와 같습니까? 2.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한 것이 있었습니까?	30분
기도제목 나눔	중보기도 제목을 나눕니다.	10분
합심기도	**나눔의 내용과 아래 기도제목으로 기도합니다. 1.교회와 속회 안에 부흥을 주소서. 2.속장님들이 성령의 능력과 아비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.	5분
기도	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.	2분